

만학도가 바라본 비틀어진 대한민국

“사회 아픔 공감하는 영화 만들고파”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이한규 씨
광주영화지원사업 독립단편 선정



원을 지원받는다.

이씨의 작품명은 ‘로프(rope)’다.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나약함을 꼬집는 내용이다.

그는 “‘로프’는 개인이나 조직 내 생존

의 줄을 의미한다. ‘로프’를 너무 쉽게 잘라내는, 특히 조직 내에서 해고나 갑질 등으로 붕괴하는 사회 문제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자는 스토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58년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높아 지난해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24학번으로 만학도가 됐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다큐멘터리 작품에도 도전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이전에도 수많은 공모전에 참여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 2020년 ‘제15회 정읍 전국실버영화제’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정읍 전국실버영화제는 국내 최초 노인영화제다.

또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공모전에서는 다큐멘터리 ‘설국 하늘다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KBS ‘시청자가 만든 TV프로그램’에서 ‘설국 하늘다리’와 ‘발로 쓴 수필, 무돌길 518’이라는 작품이 함께 소개됐고 광주MBC 등에서도 다큐멘터리 11편이 방송됐다.

이씨는 상반기 내에 ‘로프’를 ‘크랭크인’ 할 계획이다.

그는 “‘로프’ 준비 당시 학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촬영 때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개인 실력 뿐 아니라 학과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작품이 마무리되면 여러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회 문

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특히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유일의 버추얼스튜디오 등 전남권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 유일의 영화교육과정 학과로 △AI콘텐츠제작 △1인크리에이터 △언리얼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교육과정 등을 통해 관련 취·창업 분야에서도 명문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호남대 유학생들, 제주 자연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다

‘Hi! Jeju 리빙랩 프로그램’ 성료
제주 자연·에너지·로컬문화 체험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자원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Hi! Jeju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탐구를 마쳤다.

23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Hi! Jeju 리빙랩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 60명이 참여해 제주의 자연·문화·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리온 Dr.You 제주 용암수,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미래관, 보름왓 제주로컬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됐다.

첫 일정으로 유학생들은 오리온 Dr.You 제주용암수 생산 시설을 견학하며, 제주의 천연 화산암반수와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다.

제주화산암반수의 생성 원리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r.You 제주용암수의 수원지부터 생산, 포장, 출하까지의 공정 과정을 투어 형식으로 상세히 견학했다.

특히,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친환경 설비를 갖춘 위생적인 생산 시설은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에코랜드 숲 철도를 통해 제주의 원시림을 배경으로 숲 생태와 테마 공원을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와 산업과 자연이 만나는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미래관을 방문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어 방문한 한림공원에서는 아열대 식물원과 전통가옥, 석분재원 등을 둘러보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제주의 민속문화, 자연유산 등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며 천연자연 속 지속 가능한 제주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 실태를 참관했다.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자원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Hi! Jeju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탐구를 마쳤다.

호남대 제공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에서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치며 지역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제주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유학생들은 해변을 따라 가볍게 걷거나 뛰며,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마지막 날에는 보름왓 로컬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과 로컬 브랜드 운영 사례를 현지 기업가로 부터 직접 들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

적기업의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

어어서 제주자연사민속박물관을 방문해 제주의 생태적 특성과 민속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학생들은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며 큰 흥미를 보였다.

체험 후, 유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각 기관에서 느낀 점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제안 주제는 △제주 천연자원 보호 방안 △관광지 내 다국어 안내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해 확산 콘텐츠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와

실질적으로 연계 가능한 내용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찾는 ‘리빙랩 방식’의 학습 경험을 쌓았다.

국제교류처 손완이 처장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속에서 단지 학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기여하는 경험을 갖게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